

일부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의 생명의료 윤리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김윤정 · 최정미¹

목포과학대학 치위생과, ¹부산정보대학 치위생과

색인 : 생명의료윤리의식, 치위생과 학생

1. 서론

윤리라는 것은 선형적으로 제기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특정 직업집단에서의 윤리는 그 직업집단의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종이 직종내의, 그리고 사회와 갈등하며 타협함으로써 제기되고 확립되어진다. 그렇기에, 직종 대중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문제의식을 심화·발전시키며 우리 직종이 고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의 고려와 사회 속에서 우리 직종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합의와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¹⁾.

치과의료 윤리학(dental ethics)은 생명의료 윤리(biomedical ethics)의 한 분야이다²⁾. 일반적인 “도덕교육”과 “생명의료 윤리교육”의 관점과 교육목표의 차이, 그리고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인에게 정작 중요한 부분은 생명의료 윤리학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전문직윤리(professional ethics)”

의 측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윤리교육”의 범주 안에서 “도덕교육”과 “생명의료교육”, 그리고 의사의 “전문직 윤리교육”이 혼동되고 있다. 물론 이 세 영역은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서의 함의는 차이가 있다. “도덕교육”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의 도야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의료교육”은 안락사·낙태·복제 등 생명과 관련된 근본적인 윤리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전문직 윤리교육”은 환자의 비밀보호, 환자를 대할 때의 에티켓 등 의사의 직무윤리와 관련이 있다. 이 점을 혼동할 때 ‘윤리를 강의한다고 윤리적인 의사가 되지는 않는다’, ‘윤리는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회의론이 생겨난다. 이상적인 의료윤리교육을 위해서는 이 세 영역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³⁾.

시험관 아기, 인간생명의 연장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실현되면서, 의료인 입장에서

연락처: 김윤정 우 530-730 목포시 상동 525 목포과학대학 치위생과
전화: 061-270-2576 팩스: 061-270-2540 E-mail: tokyj@hanmail.net

는 전문화된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를 국민에게 공급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의료의 현장에서는 환자의 인간성이 무시되거나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료가 감행되고 있다⁴⁾. 이에 본 연구는 의료윤리교육에 대하여 점검해 보는 계기를 마련코자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의료계의 윤리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생명의료 윤리문제에 대한 치위생과 학생들의 인식을 공유해 보고 윤리교육의 기초로 이용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전라남도 소재한 2개 전문대학 치위생과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은 285부로 회수율은 89.1%이었다. 이 중 결측치가 많거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설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은 연구대상자의 86.8%이었고, 응답자의 97.5%에 해당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법이었고, 설문은 심각한 의료윤리문제를 묻는 문항, 생명의료 윤리문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학년분포를 보면 1학년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Item	N (%)
Grade	1	132(47.5)
	2	93(33.5)
	3	53(19.1)
Resident area	City	77(27.7)
	Town	145(52.2)
	Others	56(20.1)
	Religion	Presence
	Absence	127(45.7)

47.5%, 2학년이 33.5%이었고 거주지는 중소도시가 52.2%, 대도시가 27.7%이었으며, 종교는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54.3%이었다(Table 1).

3.2 심각한 의료윤리문제에 대한 인식

심각한 의료윤리문제 7가지(영리를 위한 진료 행위조절, 광고문제, 치료거부, 의료 형평성의 문제, 환자에 대한 불친절, 관리가 불충분한 임상시험, 환자의 비밀보장소홀) 중, 3가지씩 복수로 적도록 한 문항의 분석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의료윤리 문제는 '영리를 위한 진료행위조절' 이 60.4%, '환자 불친절' 이 56.0%, '의료 형평성의 문제' 가 49.5%로 타 윤리문제들에 비해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Table 2. Response to the serious ethical issues

	Item	N (%)
Bribery*		168(60.4)
Advertisement		27(9.7)
Treatment refusal		81(29.1)
Equality		137(49.5)
Unkindness for patient		155(56.0)
New drug trials		124(44.8)
Don't keep a secret for patient		73(26.4)

*:multiple response

Table 3. The respondents' positivity on the biomedical ethics problems

Item	Agree	Disagree
Euthanasia*	165(59.4)	113(40.6)
Artificial abortion	146(52.5)	132(47.5)
Human cloning	45(16.2)	233(83.8)
In vitro fertilization	220(79.1)	58(20.9)
Sex change	133(47.8)	145(52.2)
Homosexuality	104(37.4)	174(62.6)
Brain death	138(49.6)	140(50.4)

* : N(%)

3.3 생명의료 윤리문제에 대한 인식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윤리문제에 대해 의견을 물었을 때, '시험관 아기기술' 에 대해서 '찬성' 이 79.1%, '반대' 가 20.9%로 찬성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안락사', '낙태', '뇌사' 순으로 '찬성' 하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복제' 에 대해서는 '반대' (83.8%)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Table 3).

3.4 생명의료 윤리문제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견해 차이

3.4.1 학년에 따른 생명의료 윤리문제에 대한 응답의 차이 비교

생명의료 윤리문제에 대해서 학년에 따른 비교분석을 한 결과, '인간복제' 에 대해서만이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5). 2학년 학생들은 93.5%가 '인간복제' 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은 각각 77.3%, 8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2 거주지에 따른 생명의료 윤리문제에 대한 응답의 차이 비교

치위생과 학생들이 생명의료 윤리문제에 대해 거주지에 따른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 '안락사' 와 '인간복제' 를 제외한 다른 윤리문제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뇌사' 에 대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찬성' 이 각각 57.1%, 52.4%인 반면,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반대' 가 67.9%로 상반된 응답이 나타났다.

Table 4. Opinion about telling the biomedical ethics problems by grade

Item	1		2		3		p value
	Agree	Disagree	Agree	Disagree	Agree	Disagree	
Euthanasia*	78(59.1)	54(40.9)	62(66.7)	31(33.3)	25(47.2)	28(52.8)	0.070
Artificial abortion	75(56.8)	57(43.2)	46(49.5)	47(50.5)	25(47.2)	28(52.8)	0.380
Human cloning	30(22.7)	102(77.3)	6(6.5)	87(93.5)	9(17.0)	44(83.0)	0.005
In vitro fertilization	105(79.5)	27(20.5)	73(78.5)	20(21.5)	42(79.2)	11(20.8)	0.982
Sex change	66(50.0)	66(50.0)	38(40.9)	55(59.1)	29(54.7)	24(45.3)	0.216
Homosexuality	50(37.9)	82(62.1)	32(34.4)	61(65.6)	22(41.5)	31(58.5)	0.687
Brain death	65(49.2)	67(50.8)	49(52.7)	44(47.3)	24(45.3)	29(54.7)	0.685

* : N(%)

Table 5. Opinion about telling the biomedical ethics problems by location

Item	City		Town		Others		p value
	Agree	Disagree	Agree	Disagree	Agree	Disagree	
Euthanasia*	48(62.3)	29(37.7)	90(62.1)	55(37.9)	27(48.2)	29(51.8)	0.165
Artificial abortion	41(53.2)	36(46.8)	84(57.9)	61(42.1)	21(37.5)	32(62.5)	0.034
Human cloning	12(15.6)	65(84.4)	29(20.0)	116(80.0)	4(7.1)	52(92.9)	0.084
In vitro fertilization	65(84.4)	12(15.6)	118(81.4)	27(18.6)	37(66.1)	19(33.9)	0.023
Sex change	46(59.7)	31(40.3)	70(48.3)	75(51.7)	17(30.4)	39(69.6)	0.004
Homosexuality	33(42.9)	44(57.1)	59(40.7)	86(59.3)	12(21.4)	44(78.6)	0.021
Brain death	44(57.1)	33(42.9)	76(52.4)	69(47.6)	18(32.1)	38(67.9)	0.011

* : N(%)

3.4.3 종교에 따른 생명의료 윤리문제에 대한 응답의 차이 비교

치위생과 학생들이 생명의료 윤리문제에 대해 종교에 따른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 '뇌사' 문제에 대해서 종교가 있는 학생들은 56.3%가 '반대' 입장이었고 종교가 없는 학생들은 43.3%가 '반대' 입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0).

4. 증결 및 고인

현대의학은 인간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간능력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엄청난 현대의학의 결과물들은 우리에게 인간존엄을 경계선상에 두

고 항상 두 개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과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오래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존엄한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쉽게 내려질 수 없는 것이며, 그러기에 현대 의학을 두고 수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무수한 논쟁들은 의료계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생명과 연관된 것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측면에만 호소해도 안 되지만, 본질과는 매우 동떨어진 길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의료계의 현실을 제 길로 돌려놓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윤리 문제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고기회를 주고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의료윤리문제와 생명의료 윤리문제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조사하였다. 치위생과 학생들이

Table 6. Opinion about telling the biomedical ethics problems by religion

Item	Presence		Absence		p value
	Agree	Disagree	Agree	Disagree	
Euthanasia*	84(55.6)	67(44.4)	81(63.8)	46(36.2)	0.179
Artificial abortion	74(49.0)	77(51.0)	72(56.7)	55(43.3)	0.228
Human cloning	21(13.9)	130(86.1)	24(18.9)	103(81.1)	0.327
In vitro fertilization	115(76.2)	36(23.8)	105(82.7)	22(17.3)	0.236
Sex change	70(46.4)	81(53.6)	63(49.6)	64(50.4)	0.631
Homosexuality	53(35.1)	98(64.9)	51(40.2)	76(59.8)	0.455
Brain death	66(43.7)	85(56.3)	72(56.7)	55(43.3)	0.040

* : N(%)

인식한 심각한 의료윤리문제는 '영리를 위한 진료행위조절', '환자 불친절', '의료 형평성의 문제'로 의사⁶⁾, 간호사⁷⁾, 치과대학생⁸⁾의 인식조사에서와 비슷한 맥락이었고 본 연구에서 개방형으로 질문한 임상실습 시 경험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도 '환자 불친절'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유석 등⁹⁾의 연구에서는 '과잉진료', '치료거부', '의료형평성'의 순으로 약간의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생명의료 윤리문제인 '낙태', '안락사', '뇌사', '시험관아기시술', '동성애', '성전환수술', '인간복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간복제', '성전환수술', '동성애'를 제외한 문제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낙태'에 대한 일반적인 윤리적 거부감은 산모의 건강에 대한 극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적 유산(Therapeutic abortion)이 아니라 미혼녀의 임신이나 가난 그리고 기존 자녀가 많다거나 남존 여비사상에 의한 여아 낙태같은 편의적 유산(Convenient abortion)으로 인한 것이다¹⁰⁾. '안락사' 문제는 찬성률이 59.4%로, 간호사⁷⁾들은 65%, 치과대학생⁸⁾들은 88.8%로 치위생과 학생들이 치과대학생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Lowe 등¹¹⁾은 '안락사' 문제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 같은 죽을 권리는 아니라고 하였다.

의료윤리교육은 미국의 경우 1972년에 의료윤리를 공식적으로 가르친 학교가 4%에 불과하였으나, 1989년에 와서는 개별적으로 필수과목으로 다루는 학교가 34%에 이르렀고 1994년에 미국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정규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예과와 본과에서 교육하고 있다. 또 미국의 의사국가시험에는 예방의학 부분에 의료윤리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의료윤리 과목의 교육을 거의 강제하고 있는 형태이다

12). 윤리교육을 잘 받은 학생들이 치과위생사가 되었을 때에 윤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잘 수행할 수 있다¹³⁾.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명의료 윤리문제에 대해 졸업을 앞둔 3학년과 그렇지 않은 학년간의 응답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미래의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윤리교육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일부의 치위생과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조사연구로 전체 치위생과 학생들의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이러한 시도는 치과의료 현장에서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될 것으로 생각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윤리교육에 대한 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전남지역 2개 전문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의료 윤리문제에 대한 의식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의료윤리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위생과 학생들이 인식한 심각한 의료윤리 문제는 '영리를 위한 진료행위조절', '환자 불친절', '의료형평성의 문제'의 순이었다.
2. 생명의료 윤리문제 중 '시험관 아기시술'은 '찬성'이 79.1%, '반대'가 20.9%로 찬성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인간복제'는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생명의료 윤리문제 중 '안락사'와 '인간복제'를 제외한 다른 윤리문제에 대해서 거주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뇌사' 문제는 종교가 없는 학생들보다 종교

가 있는 학생들이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의 윤리. 2003년.
2. 권호근. 치의학 교육과 치과의료 윤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2000년.
3. 권복규, 장두이. 의료윤리교육에 있어서 역할극의 활용. 의료·윤리·교육 2002;7(1):19-31.
4. 유인철. 간호사 윤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년.
5. 김정진. 현대 의학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년.
6. 구영모, 권복규, 김옥주, 황상익.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식조사. 의료·윤리·교육 1999;2(1):43-61.
7. 김미주. 현 의료계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간호사들의 의식조사. 의료·윤리·교육 2001;4(1):15-30.
8. 김윤정, 유미선, 김수남. 현 의료계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일부 치과대학 학생들의 의식조사. 의료·윤리·교육 2003;6(1):54-62.
9. 정유석, 박일환, 박석진.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의식 조사. 의료·윤리·교육 2000;3(1):99-111.
10. Fandes A, Hardy E. Consequences for women's health and the health care system. Int Jb Gynaecol Obstet. 1997;58(1):77-83.
11. Lowe SL.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is not a right to be killed. J Med Ethics 1997;23(3):154-158.
12. 김재영. 의료인의 윤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년.
13. 김윤정, 장윤정,곽정숙, 김수남.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5;5(1):1-5.

Abstract

A Survey of Dental Hygiene Students' perception toward the Biomedical Ethics Problem

Yun-Jeong Kim, Jung-Mi Choi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okpo Science College,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usan Info-Tech College

Key words : biomedical ethics, dental hygiene students

This paper describes biomedical ethics problem percep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for 285 in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September 3th to 21th of 2007. For statistical analyses of collected data, the descriptive analyses and chi-square were adopted.

This collected data showed that bribery as the most common ethical problem. Other frequently mentioned problems are unkindness of patient and treatment equality. They agreed to artificial abortion in 79.1%, human clon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grade. Biomedical ethics problem except euthanasia and human clon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resident area. Also, brain deat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religion.

